

# 고른 영양 섭취 위해 급식실 마련

## 청성초등학교 튼튼이 샐터 준공식 가져

청성초등학교(교장 임승출)는 11월28일 오전 11시30분 학교 강당에서 튼튼이 샐터 급식실 준공식을 가졌다.

이날 준공식은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을 비롯해 관내 초등학교 교장,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장, 이학교 출신 이종효 포천시의원 등 내빈과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됐다.

이날 임승출 청성초등학교 교장은 "동문들이 6천여만원의 기금을 조성해 그동안 활용하던 급식실겸 강당은 조리실이 없어 자재조리가 불가했다"며 "포천교육청과 포천시의 지원을 받아 어린이들에게 고른 영양섭취는 물론 위생적이고 청결한 환경을 갖춘 급식실 튼튼이 샐터를 준공하게 되었다"고 밝히고 그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분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최길용 경기도포천교육장은 격려사를 통해 "주변에 150만여명의 신도시가 개발되면 청성초등학교는 더욱 큰 학교로 발전하게 될 것"이



청성초등학교 급식실 '튼튼이 샐터'가 11월28일 준공식을 가졌다.(사진은 준공식에 참석한 분들이 개관 테이프 커팅을 하고 있다.)

라며 "오늘 개관하는 튼튼이 샐터로 청성초등학교 재학생들이 더욱 건강하게 이 학교 출신 훌륭한 선배들보다 더욱 훌륭하게 성장해 주길 당부"했다.

이강립 포천시의회 의장은 축사를 통해 "청성초등학교 급식실 개관을 축하하며 이 급식실을 통해 건강하고 튼튼한 어린이로 성장해 나가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개관식을 가진 청성초등학교 급식실은 7억7천여만원

을 들여 407㎡의 면적에 164석 규모의 시설로 청성초등학교 179명(교직원 25명), 유암초등학교 94명(교직원 13명)에게 급식을 제공할 계획이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포천 초등학교는 11월21일 제14회 관현악부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 자라나는 새싹들의 작은 음악회

### 포천초 제14회 관현악부 정기연주회

포천 초등학교(교장 임종수)는 11월21일 제14회 관현악부 정기 연주회를 개최했다. 포천반월 아트홀에서 열린 작은 음악회는 관현악부 어린이들이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하는 장이 되었다.

현악부의 엘가의 위풍당당, 하울의 움직임은 성 라라테마곡 등과 관악부의 Sousa At The Circus, 가요 모음 등, 그리고 선생님들의 풀꽃 연주는 많은 사람들의 박수 갈채를 받았다.

이날 작은 음악회는 포천 초등학교의 관악부를 졸업했던 선배들이 연주에 함께 참여하여 관현악부 후배들에게 용기와 격려를 해 주며

선후배의 따뜻한 사랑을 보여주었으며 영중 중학교의 락밴드가 찬조 출연하여 음악회가 더욱 즐거웠다. 신나는 연주로 관현악부 어린이들은 물론 교장 선생님을 비롯하여 많은 선생님들과 가족과 친구들이 모두 한마음이 되는 것을 느낄 수 있었다.

4학년 조유정양 어머니께서는 "유정이가 관악부를 하고 싶어했지만 너무 힘들 것 같아서 안 시켰는데 오늘 와서 음악회를 보니 관현악부에서 활동하게 하고 싶다"며 감탄하셨습니다.

이처럼 학생명예기자(포천초 4년) skfjgk3@hanmail.net

## 화현초 꿈나무 골프

안녕하세요? 우리 학교는 2004년부터 돌아오는 농촌 학교로 지정되어 골프학습장을 마련하여 2005년부터 재합학습으로 전교생이 일주일 1시간씩 골프수업을 받게 되었다. 골프에 흥미와 재능을 가진 학생들에게는 방과후 특기적성 시간에 주 3회 심화지도도를 추가로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우리 학교가 많은 신문과 방송에 나와서 좋았다. 이렇게 좋은 학교에서 마음껏 골프를 배우고 있어서 좋고, 질 수 있어서 좋다. 우리학교로 구경오세요. 여러분도 인터넷 http://www.hwahyun.es.kr/ 들어와 보세요. 환영합니다. "나이샷!"

이디해 학생명예기자(화현초 5년) grstpkdhd@naver.co.kr

## 유암초 하늘말나리 도서관 개관

우리 유암초등학교는 11월1일 기다리고 기다리던 도서관 개관식을 가졌습니다.

여러가지 알록달록 색깔을 입혀 낡은 가구들도 새롭게 바뀌었고, TV에 나온 생활의 달인이 직접 학교에 오셔서 선생님들과 함께 학교를 예쁘게 꾸미고 많은 도움을 주셨습니다. 그 중에서도 우리학교의 6학년 언니오빠들이 무거운 책을 나르며 걸레질을 했을 생각을 하니 선생님들과 언니들에게 감사할 따름입니다.

우리 하늘말나리 도서관은 책

을 읽는 친구들도 북적거립니다. 새로운 책들도 많이 들어왔고, 무엇보다 너무 예쁘게 꾸며져 있어서 책보는 재미가 두배입니다. 하늘말나리를 개관하고 나서부터는 책이 흥미가 없던 친구들도 도서관에 자주 들러서 독서물을 높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암친구들이 도서관을 깨끗하고 바르게 이용하여 타학교의 모범이 되는 도서관이 되도록 힘써야 할 것 같습니다. 많이 축하해 주세요.

권경아 학생명예기자(유암초 5년) wjddk5919@naver.com

## 학교장이 책임감 갖고 입학관리 해야

### 김진춘 경기도교육감, 사학경영자연수회에서 강조

김진춘 경기도교육감(사진)은 "학교장이 책임감을 갖고 입학 관리 계획을 주도면밀하게 수립하고 이를 철저히 시행함으로써 교사 관리에 한 치의 오류도 없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11월23일 100여명의 사학 법인 이사장이 참석한 '2007년 사학 경영자 연수회'에서 김포의교 입시 문제 유출 사건을 설명하면서 오는 12월11일에 시행되는 일반계 고등학교 입시에서 학교장이 중심이 돼 문제지 관리, 교사 감독 등 입학 관리 전반에 걸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이어서 무한 경쟁 시대에 최강국이 되기 위해선 수월성 교육을 통한 글로벌 인재 양성에 주력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사학들도 명품 학교를 만들기 위해 나름대로 명품 브랜드를 개발해 주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또 법인 이사회 운영, 교직원 인사 관리 등 학교 경영과 관리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함으로써 학교의 교육력을 높이고 공교육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도 당부했다.

한편, 2007 사학경영자 연수회는 11월 24일까지 1박 2일 동안 사학의 현안 사항에 대한 협의와 초청 강의 등으로 진행됐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 사생화 최우수상 포천초 조진선 어린이

### 포천소방서, 불조심 표어 포스터 심사 결과

포천소방서(서장 이보형)는 11월 16일 오후 2시 소방서 3층 회의실에서 2007년 전국 불조심 달을 맞아 사생화, 포스터, 표어 3개 부문 353점의 작품에 대하여 심사를 실시했다.

이날 작품심사는 전국 불조심 강조의 달을 맞아 어린이들의 불조심 안전의식 고취와 안전문화의 조기 정착을 위하여 포천의 각 초등학교별로 어린이 불조심 작품 공모를 통해 응모된 353점에 대하여 심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하여 포천교육청에 심사위원을 의뢰, 교사 윤환일 등 3명의 심사위원의 엄정한 심사를 거쳐 42명의 어린이(최우수

3, 우수9, 장려30)가 수상자로 선정됐다.

사생화 부문에서는 포천초등학교 1학년 조진선 어린이가 최우수상, 포스터 부문 태봉초등학교 5학년 허재경 어린이 최우수상, 표어 부문 송우초등학교 6학년 정신영 어린이가 최우수상을 차지했다.

한편, 포천소방서는 공모된 우수 작품에 대하여 관내 여러사람이 운집한 장소 등에 전시한다고 밝히고 상장과 부상품을 11월 중 각 초등학교에 전달해 학교장이 전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영복 기자 best114@paran.com

**윤중성의 국제비즈니스미국영어**

**수와 셀**  
3. <수> 읽기 : (1)  
\* <조인> : 천 단위(세자리)로 끊어서, 눈으로 익혀 둘 것.  
\* - 1,000(천) : 파우센 <Thousand.>  
- 10,000(만) : 텐파우센 <Ten thousand.>  
- 100,000(십만) : 한드레드 파우센스 <Hundred thousands.>  
100xcs  
- 1,000,000(백만) : 밀리언 <Million.>  
- 10,000,000(천만) : 텐밀리언스 <Ten millions.>  
- 100,000,000(억) : 한드레드 밀리언스 <Hundred millions.>  
- 1,000,000,000(십억) : 파우센 밀리언스 <Thousand millions.>  
- 10,000,000,000(백억) : 텐파우센 밀리언스 <Ten thousand millions.>  
- 100,000,000,000(천억) : 한드레드 파우센 밀리언스 <Hundred thousand millions.>  
1,000,000,000,000(조) : 빌리언 <Billion.> 100만×100

문의 : 윤 중 성 (017-723-4977) ccoyon@nate.com

## 함께 공부해요

### 심술지요(心術之要) ④

居處恭하며 執事敬하며 與人忠을 雖之夷狄이라도 不可棄也니라. (홍오랑개이 狄오랑개적) 오랑개는 미개한 민족을 뜻함.

기거 동작을 공손하게 하며 일의 처리는 공경히 하며, 남파의 사람을 성실하게 하는 것은 비록 오랑개 땅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된다.

이 글에서는 몸가짐을 공손히 하고 일 처리는 공경히 하며 남과 사귀거나 일을 함께 할 때에는 성실하게 하는 것은 비록 오랑개 땅에 가더라도 버려서는 안된다.



양주승 본지 사론위원/교문

## 자유기고

### 학생이 바라보는 교육의 비애

#### 높아진 내신비중에 뒤따라가다 대선에 발목잡히다

대선이 얼마 남지 가운데 각종 언론 매체들은 선거 후보와 선거인단의 행보가 연신 쏟아져 나오고 있다. 현대 이와 무관한 학생들마저 후보를 못지 않게 걱정을 늘어놓고 있다. 이유인즉 현재 유력한 대통령 후보가 발표한 교육 정책에서 발원이 되었다.

우선 교양의 2009년의 입시를 바라보는 우리 포천시의 학생들의 시선이 우려스럽기 그지없다. 포천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교육 환경을 가지고 있고 학생들의 학력 또한 전국대비로 비추어 보아 타지방과 다르지 않은 저조한 수준이다. 그나마도 학생

들은 입시의 내신비중 강화로 내신을 발판 삼아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형편이다. 하지만 유력 후보의 정책 중 대입자율화가 현실화된다면 지금의 학생들이 혼란을 겪을 것은 뻔한 일이다. 대입자율화 정책보다 정확해 생각하면 학생부 및 수능 반영률의 자율을 주는 것인데 이는 다시 말해 대학의 본고사와 고교등급제의 허용을 하는 꼴이다. 따라서 학생

부과 내신비중이 높아진 지금의 교육정책에 맞춰오던 대부분의 학생들은 큰 타격을 맞게 될 것이다. 더욱 우려스러운 것은 2009년

대입 이후의 상황인데 사립고교가 늘고 본고사가 부활된다는 가정하에 사실상 공교육은 무너지는 형태에서 교육의 전향할 수 있는 환경이 절실하다. 지역의 자녀, 그리고 미래가 지 내다볼 수 있는 시민의 자세가 필요한 시점이다.



김기정 학생명예기자/단국대 학생회장

## 임실 치즈마을을 다녀와서

지난 20일 치즈 만들기 체험을 위해 전라도로 향했다. 아버지, 나, 한희, 한비(동생들) 그리고 친척동생 나리도 같이 갔다. 우리 어머니께서는 어린이집 교사로 일하시며 같이 여행에 동반하지 못하셨다.

"너희 아빠, 엄마 없인 하루도 못살 걸" 하시던 엄마의 한마디에 난 "괜찮아요~"라고 한마디 했다. 20일 출발하던 그날 단단히 준비를 한 우리는 작별의 인사를 하고 떠났다.

출발할 때는 너무나 신이 나고 재미있었다. 하지만 1시간, 2시간, 3시간...시간이 흘러흘러 우리는 점점 지쳐 갔다. 막내 한비는 이미 잠들어 있었고 난 아빠의 비서로 있었다. 잠은 오지 않고 언제 도착할까? 걱정 근심에 사로잡혀 있었다. 숙소인 지리산 일성콘도에 도착

했을 때 우리는 완전 지친 상태였다. 그리고 다음날 숙소에서 출발을 해서 1시간 후에 치즈마을에 도착했다.

우리는 몸에 약간 장애가 있는 언니, 오빠들과 같이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경운기를 타고 치즈마을을 체험장으로 향할 때는 너무나 기분이 색달랐다. 마치 잠시동안은 '이 사람들은 장애인이 아니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였다.

그래서인지 이 언니, 오빠들이 멀지 않게 느껴졌다. 체험장에 도착해 퀴즈를 풀었다. 그곳 행자 농부 아저씨께서는 이런 치즈를 만들 때에도 사랑을 듬뿍 담아 만들어야 한다고 하셨다. 그리고 상품인 요구르트를 받아 갈 때에는 사랑의 표시인 "사랑해요~"라는 표현을 해야 받아 갈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모짜렐라 치즈 체험을 했는데 치즈가 짭~ 짭~ 늘어났다. 그리고 식당에서 부녀회 아저머니들께서 만드신 치즈 돈까스를 먹고 집으로 돌아왔다.

이 경험을 통해 나는 아직 어리지만 장애인인 언니, 오빠들을 보며 일반사람들과는 다른 순수함을 느낄 수 있었고, 농촌이지만 이런 점을 물리치고 도시사람들이 체험으로 농촌의 색다른 점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너무나 고맙웠다. 이 글을 읽고 다른 분들께서 여기 한국치즈의 시작, 임실 치즈마을에 오셔서 또 다른 깨달음을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다.

hanahne@naver.com



박안야 학생명예기자/양평초 5년

## '오체불만족'을 읽고

오토다케 히로타다라는 일본인의 실화를 바탕으로 다룬 책을 읽기 전에 KBS 9시 뉴스에서 방송된 기사를 보게 되었다. 그리고 나서 얼마후에 서점에서 새로 나온 책 코너에서 활채어에서 팔다리가 없는 한 사람이 가장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는 책 겹표지를 보게 되었다.

오체불만족이라는 제목과 같이 오토는 태어날때부터 장애의 몸을 가지고 태어나 자라면서 비록 남과 다른 자신을 느꼈겠지만 한 인간의 생명체로서는 그 본질 자체로 느꼈던 것 같다.

팔 다리가 없는 장애우를 특수학교에 보내지 않고 요가학교에 일반 아이들과 다르다고 느끼지 않고 보낸 부모님 덕분에 오토가 훌륭한 승승인 다케다신 선생님이 오토의 인생에 큰 도움을 주었다고 생각된다.

헬렌켈러라는 책에서도 비록 장애를 가졌지만 앤 셸리만 선생님의 도움 덕분에 하버드대학교에 가게 된 것처럼 오토도 장애를 극복하고 와세다대학교까지 갈 수 있었던 것처럼 이 책을 읽고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다.

오토다케히로타다가 언론에 관심을 얻게 되면서 인터뷰의 모습에서 장애를 가진 그가 지금까지 살아 매우 즐거웠고 현재의 삶 또한 만족하면서 살아 가고 있다고 웃으며 말했다. 때때로 저 사람이 정말로 진심으로 만족해서 저런 말을 하는가 하고 괜히 언론에 비추어 그러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심도 하였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야 비로소 몇 번이나 장애우에 대한 편견을 버리게 되었다.

오토가 와세다대학에 마음의 장벽없는 학교로 만드는 일에

성공하고 강연도 하면서 활동 할 때, 교육은 어렵게 때부터 필요하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될 때 몸의 장애는 결코 그 사람의 인생에 장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였다. 장애를 가진 사람도 환경 탓하지 않고, 그 삶에 만족을 이루며 살아가는데는 주위환경만 생각하고 팔다리를 가진 나조차도 인생에 불평만 늘어놓고 살아온 내 자신이 정말 부끄럽고 한심스러웠다.

이 책을 읽고 오토다케히로타다라는 장애를 가진 한 사람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으며 내가 살고 있는 이 순간에 포기하고 싶어진 때 오토를 생각하며 느낀 내 자신을 한번 돌이켜 보아야겠다고 다짐했다.



김연수 학생명예기자/동명초 3년

## 시

### 나의 꿈!

스튜어디스 현혜선

하늘을 나는 비행기를 타고 여행을 가듯 자기의 일을 하는 스튜어디스!

스튜어디스? 니가?

누가 이런 말 한데도 기죽지 않고

나의꿈 스튜어디스를 위해 노력할 것이다!

누가 뭐라하든지 내꿈을 이루기 위해!!



현혜선 학생명예기자/도평초 5년